

홈 > 뉴스 > 소비자·금융·헬스

## 초등수학에 대한 고민, 부모마법학교로 진짜 수학의 힘을 키우자!

수학 기피 원인 정확히 진단, 사고력 수학비법으로 흥미와 재미 유발

2017년 12월 22일 (금) 10:46:30

고영진 기자 ✉ 2580@newsworker.co.kr

[뉴스워커\_고영진 기자] 초등학교가 방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지런한 학부모들은 일찌감치 신학기 준비를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는 자녀를 수학포기자로 불리는 '수포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등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수학의 경우 이해력과 판단력이 뒤따라야 하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의 학습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선행학습을 실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남들이 하는 선행학습을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아이의 수학 호기심이 다칠 수 있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



▲ 사진제공 = 놀이나무

이에 (주)놀이나무의 수학마법학교는 부모와 함께 즐겁게 초등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학마법학교는 학생들이 수학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시스템 부재 ▲사고력 수학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는 학교 분위기 ▲점수만 책임지는 사교육으로 분석한다.

(주)놀이나무 부모수학마법학교는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즐거운 수학공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먼저 사고력 수업을 통한 수학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 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이후 아이와 부모가 한 팀이 돼 학부모에게는 핵심 역량을 교육하고, 아이에게는 사고력 수학 비법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가 주체가 되는 수학공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수학마법학교의 목표인 것.

(주)놀이나무 관계자는 “수학마법학교를 통해 자녀의 수학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며 “자녀의 수학 고민으로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다면 부모마법학교에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놀이나무는 10년 넘게 박물관체험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외에 다양한 전문기관의 수업을 대행하면서 학생발문 중심의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교육전문기관이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다. 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수학공부의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6개 도서관에서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 올해 개설한 부모마법학교는 총 20회를 개최해 1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